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81 (영광의 주 성삼위)	210 (나의 생명 드리니)	156 (한 말씀만 하소서)	144 (주의 일이)

제 1독서 | 신명기 4,32-34.39-40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좌)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우)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좌)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우)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 2독서 | 로마 8,14-1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8,16-20

영성체 후 묵상 |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신학적인 내용을 훈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방식에 혁명을 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치와 상호작용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사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타인들과 함께 타인들을 위해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그 크신 참사랑을 반영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나는, 내가 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고, 다른 이들에게 나를 내어줘야 한다고, 다른 이들을 진실로 사랑해야 한다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살고 있습니까?

Today's Gospel, <Matthew 28:16-20>



The eleven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to which Jesus had
ordered them.

When they all saw him, they worshiped,
but they doubted.

Then Jesus approached and said to them,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age."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앞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About Trinity

There are three Persons, but one God.
These three Persons are not three gods.
Mom, Dad, and a child are three persons,
three individuals. With God, it's different: He
is three Persons in one God. When we speak
about God, when we say we believe in God,
when we pray, it is truly a question of three
Person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We offer these three Persons the
same adoration and the same glory. No one
of them is more important or more divine
than the others.

Three Persons love one another. The
meaning of the Holy Trinity is just this
infinite love continually flowing between
three Persons. For love to be love, it must
be given. It is always, every time, a gift
given by one to another. Love presumes
there is someone to give it as a gift, and
someone to receive it as a gift. For love to
be, there is the giver, the receiver and the
gift itself. Love is, in other words, something
that is threefold in form. If it is not a gift, it
is not love. If it is not given as a gift, it is
not love. If it is not receivable as a gift, it is
not love.

The Holy Trinity is this threefold love. The
Father is the Person who gives the gift of
himself to his Son. The Son is the Person
who returns the gift of himself to the
Father. The Holy Spirit is the Person who is
the gift exchanged. One God, who is love,
perfectly given and received in the persons
of the Trinity. And it is this God, the
trinitarian God of love, who gives himself to
us. Perhaps not an explanation, but certainly
a gift to place our trust in.

In the face of the mystery of one God in
three Persons, we say to ourselves: "That's
impossible. It's ridiculous to think it's true"
— then we remain within the confines of our
very limited intelligence, with a ground-level
view of reality. If one believes, if one
accepts to recognize a superior reality, one
can then enter into the Mystery. Through
faith, we can get a glimpse of the Holy
Trinity, the true love, and contemplate it as
we await the day when we will see it face to
face. As we gaze upon the Holy Trinity, we
see that God is love.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About Trinity)

Q: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을 '삼위일체 하느님'이라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R: 우리 그리스도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유일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지만 이 세 분은 서로 충만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같은 신성(神性) 안에서 한 분으로서 깊이 일치해 계십니다.

Q: 어떻게 하느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가요?

R: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 특히 그 역사가 담겨 있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 하느님은 세 분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세상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며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성부 하느님이 계십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부께서 세상에 보내신 성자 하느님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자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성화하고 인도하도록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Q: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삼위일체인 것을 왜 드러내 보이셨나요?

R: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나 연인과 같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인간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역사(창조-성부, 구원-성자, 성화-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Q: 하느님이 세 분이신데 어떻게 동시에 한 분으로 드러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R: 예, 사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공의회를 주도한 정통 교부들은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하던 몇 가지 개념을 빌려서 세 분 사이의 관계와 이 세 분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 분은 동일한 본체(substantia)이시며, 세 위격(persona)으로 드러나십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하나의 신성(神性)을 누리시며, 이 점에서 볼

때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반면, 세 분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으로 드러나십니다.

Q: 그렇다면, 위격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R: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 위격(Persona)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본질을 간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神性)을 간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영'으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성부·성자·성령의 세 위격은 단순히 역할이나 외적 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적 주체의 현존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논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인간 처럼 어떤 등급이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부·성자·성령, 이 세 위격 사이에는 어떠한 우열이나 등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기 독립적인 세 위격들로 구분되지만, 모두 동일한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다만 삼위일체에서 구분되는 것은 출생시키신 분(성부)과 출생하신 분(성자), 그리고, 발출시키신 분(성부·성자)과 발출하신 분(성령)의 근원에 관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우열 순위가 아닌, 호칭의 순서로 생각해야 합니다.

Q: 삼위일체 신비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신비를 삶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R: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머리로는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일치 관계 안에서 삼위가 일체이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아마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되는 지복직관의 순간일 테지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지 사항

1. '여정 - 시즌 1' 안내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2. 첫영성체 교리반 안내

- 일시: 7월 7일(주일)~ 28일(주일) (총 4회)
- 교리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7살 이상 학생
- 첫영성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PDF 파일은 성당 홈페이지 '주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방학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이 6월~7월까지 방학을 맞이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가운데, 앞으로의 친교와 만남을 더욱 기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다큐멘터리] 故 김성현 신부의 마지막 강의

- 몽골에서 선교하시다가 작년에 선종하신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에 관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가톨릭신문' 채널에서 검색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5월 12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51명
5월 19일	유아·청소년: 22명	성인: 47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5월 26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다음주 (6월 2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5월 26일)	마태오반
다음주 (6월 2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5월 18일 ~ 5월 24일)

봉 헌 금	\$350			
교 무 금	\$450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장호훈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